

‘5·4시기’ 중국의 신구 세대 갈등

강 명 희

(한세대 경영학부)

1. 머리말

중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5·4정신’을 계승, 완수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이 언론에 종종 등장하고 있으며 내포된 의미는 ‘민주와 과학’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5·4운동’은 엄밀히 말하면 ‘5·4애국학생운동’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 전후의 학생 상인 노동자가 가세한 정치적 애국운동 및 지식인 학생 중심의 新文化運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 민주와 과학을 ‘5·4정신’으로 간주하는 것도 신문화운동의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며, 신문화운동은 보통

1) 5·4운동에 관한 고전적 연구로 인정받는 彭明, 『五四運動史』, 人民出版社, 北京, 1984와 Chow, Tse-tsung, *The May Fourth Movement-Intellectual Revolution in Modern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조병한역, 『5·4운동』, 광민사, 1980이 모두 신문화운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5·4운동 개념을 사용하였다. 강명희, 『5·4운동』, 서울 대동양사연구실편 『강좌 中國史』V, 지식산업사, 1989도 이를 따랐다.

주 제 어: 신문화운동, 5·4운동, 문화보수주의, 전반서화, 신청년잡지
the New Culture Movement, the May Fourth Movement, Cultural
Conservatism, wholesale Westernization, Hsin Qing-nian Magazine

1917년(또는 신청년이 창간된 1915년)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지만, 5·4운동 이전의 신문화운동의 영향은 매우 국한적이었으며 5·4운동 직후부터 전국적으로 영향이 급속히 확대되어, 동시대인들은 5·4운동을 신문화운동의 단초로 간주하고 있었다(王奇生, 2007;21-22). ‘5·4’ 이전에도 이후에도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5·4’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5·4운동 이후 오늘 날까지 해마다 그 기념식이 열리고 그 정신의 계승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위에서 일반적으로 민주와 과학을 ‘5·4정신’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민주와 과학은 청말 이래 줄곧 제기, 주장되어 온 주제였다. 오늘날까지 중국이 민주화와 과학기술 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는 바 1920년 전후에야 말할 나위도 없으며, 진독수(陳獨秀)를 위시한 『新青年』그룹이 민주와 과학의 가치를 선명하게 쳐들어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 중국사상세대 차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5·4시기’를 선택한 것은 이 시기의 사상적 충격과 갈등, 그로인한 사회적 문화적 세대갈등이 격심했다고 보기 때문인데, 세대갈등의 원인이 당시 누구나 공감하고 있던 민주와 과학의 제창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5·4’시기 중국의 사상적 격동은 종종 ‘3천년래 미증유의 변국’이라 일컬어진다. 이미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서양 근대사상의 주요 흐름이 모두 소개되고, 적극 수용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서양에서 시차를 두고 계기적으로 일어난 각종 사상들이, 때로는 상호 충돌되는 사상계통까지도, 동시에 융합되어 수용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특히 ‘민주’나 민주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신해혁명 후 혁명파의 행태는 실망스럽고 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것은 금권과 군권으로 얼룩져 민주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교적 가치체계의 지지를 받는 군주제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孔教 윤리로써 바로 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 공교를 국교로 삼아 정신교육을 시행하도록 헌법에 조항을 삽입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러한 주장은 유학과 倫常질서가 붕괴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동요되고 더 이상 일반인의 확고한 가치체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5·4시기 중국의 사상적 격동은 어떤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2천년 된 황제지배체제의 붕괴보다 더 거센 사상적 문화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을까? 5·4신문화운동은 이전의 계몽운동 또는 청말 개혁과 혁명운동이 추구한 부정(파괴)과 건설의 지향과 어떻게 달랐나, 그것이 표방한 사상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화논쟁, 그리고 실제 사회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이 세대를 구별짓는 5·4세대라는 용어와 격동한 5·4시기 중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갈등의 내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5·4세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 시기 신문화운동의 영향 속에 가치관이 형성된 당시의 청년층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시기 중국의 세대 갈등이 반드시 연령상의 세대 차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²⁾ 5·4세대라는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5·4시기 중국의 주요 세대갈등이었으나, 5·4세대가 형성된 것은 '구문화'와 '신문화'에 대한 지향이 다른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바로 이 '신구' 문화와 '신구'세대의 충돌이 당시 중국 사회에 불러일으킨 충격이 '3천년래 미증유의 변곡'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신구' 문화 및 세대의 갈등의 성격을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나아가 신문화운동의 영향 속에 실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변화와 충돌을 고찰할 것이다.

신문화운동 시기에 『동방잡지』를 비롯한 몇몇 유력 신문 잡지들이 서구 사상과 국제정치 상황의 소개 등 계몽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신문화운동은 『신청년』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신청년』을 위주로 분석

2) 문화사적 측면에서 '오사운동'과 '오사세대' 문제를 전초한 유형규의 글(2006)은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에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사건으로서 오사운동이 기억되는데 기여한 사람들로 한정된 좁은 의미로 '오사세대' 개념을 사용하였다. 주로 胡適(호일파)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이 오사운동의 기억을 소중히 유지시켰다고 보았다. 본고는 후술하는대로 광범한 의미로 '오사세대'를 사용하며, 지식인들 가운데 자유주의자 뿐 아니라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도 '오사운동'을 신민주주의 시점으로 인식하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신문화운동의 반전통주의

우선 신문화운동이 새로운 문화를 건립하기 위해 ‘타도’하고자 한 ‘구문화’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과연 전통타파운동이었는지, 그 내함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신문화운동이 문학혁명과 사상혁명의 내용으로 전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를 통해 중국의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자 하였는지, 공자 이래 유가사상 내지 유학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었는지, 단지 유교적 예교질서, 특히 현대사회에 그것을 복귀시키려는 의도만을 비판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중국학계 논쟁이 지속된 주제이다.

<신청년> 陳獨秀가 청년들의 사고방식을 개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1915년 上海에서 『청년잡지』를 창간하고 『警告青年』을 발표하여 자립적·진취적·세계적·실질적·과학적인 청년상을 제시하였다. 1916, 17년 2년 동안 진독수뿐 아니라 高一涵 李大釗 吳虞 胡適 등이 중요 논설을 게재하였고, 제2권부터 反孔教 및 文學革命을 주장하는 글이 발표되었지만 여론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고, 제3권에도 저명 학자들이 기고하였고 신문화운동의 중요 이슈들이 제기되었지만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아직 ‘운동’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다(王奇生, 2007: 22-25).

그러나 1918년 『신청년』제4권부터 양상이 달라졌다. 1917년 진독수가 북경대 문과대학장직에 취임하여 北京으로 무대를 옮겼고, 『신청년』은 북경대 교수 학자들이 기고하는 동인간행물로 변화하였다. 북경대의 권위를 빌어 『신청년』의 명성이 확대됨과 동시에 『신청년』의 주장에 대한 공격적 비판이 시작되었고, 『신청년』 동인측은 다시 반격하였다. 당시 저명 학자들의 논쟁에 언론도 관심과 흥미를 느껴 ‘신구 사조의 충돌’ ‘新舊之爭’ 등의 표현으로 양측의 대립을 묘사하였다. 이때부터 신파와 구파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실상 신파 구파간의 차이가 세대차이의 문제는 아니었다. 연령대와 거의 무관한 사상적 취향과 지향의 차이였

던 것이나, 본고에서 세대 차이로써 이 시기 문화 사상적 입장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신파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은 광대한 청년 학생층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학혁명> 중국학계에서 신문화운동의 시점을 대체로 1917년으로 보는 것은, 『신청년』잡지가 北京으로 근거지를 옮겨 전국적 잡지로 발전하였고 이 때 문학혁명이 시작되었고 이후 운동으로서 발전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호적이 기고한 『중국문학개량추의』가 『신청년』2권 5호(1917.1)에 게재되었고, 진독수는 다음 호에 『문학혁명론』을 발표하여 신문화운동을 발진하였고 문학혁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문학혁명은 무엇보다 문학의 도구, 즉 문어체 문장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어체 문장인 백화문의 사용을 주창한 것이 첫째 의의일 것이다. 구문학은 죽은 문학으로 비판되었는데, 무엇보다 ‘문이재도’라는 유장한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다. 문장은 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道란 유학의 도를 지칭하였기 때문에 중국전통문화에서 문학과 사상 이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호적 진독수 등이 구문학을 공격하고 신문학을 주장한 것은 단순한 문학의 형식이나 도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학사상과 결합되어 있는 형식적 구문학이 도구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학혁명 초기 진독수와 주작인은 특히 문학의 내용면의 개혁에 대해 많은 주장을 제기하여 사실주의적 경향 내지 통속적 사회문학 국민문학 추세로 전개되었다.

호적은 역사상의 문학혁명은 모두 문학 도구의 혁명이며, 역사의 진화는 형식의 해방에 근원한다고 보았다. 중국문학사도 문자형식의 신진대사의 역사이며, ‘살아있는 문학’이 수시로 흥기하여 ‘죽은 문학’을 대체한 역사이고, 문학의 생명은 전적으로 한 시대의 살아있는 도구로서 한 시대의 정감과 사상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주장하였다. 도구가 경직되면 반드시 새 것 살아있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것이 문학혁명이라는 것이다.³⁾

호적이 백화문학을 주장한 것은 1916년 이래였고, 백화문 사용문제는 청말이

3) 호적, 『建設的文學革命論』, 『신청년』3권 3호, 1918.4, Jerome Grieder, 1970, chapter 3에 이에 관한 분석이 상세함.

래 중국사회에서 부단히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정부의 공포문이라든지 신문기사 등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백화문 사용은 더욱 요긴한 일이었고 일부 신문 잡지가 백화문을 사용하여 발간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5·4시기 신문화 지식인들은 文學의 도구로서 어문체인 백화문체 사용을 제기한 것이 차이점이고, 호적은 고전적 암시나 진부한 상투어 및 對句의 사용을 반대하며 속어 속자를 포함한 백화문이 살아있는 문학 창조에 적합한 매체라 주장한 것이다.

백화문학 주장이 1917년에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나 1918년 백화문 사용운동과 문학혁명론에 대한 반격으로 논쟁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신청년』의 명성은 크게 높아져 판매부수가 대대적으로 증가하였고⁴⁾ 신문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도 고조되었다. 5·4애국운동을 거치며 백화문 사용 추세는 전국적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는데,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 조직화된 학생운동의 전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5·4이후 학생단체가 발행한 백화문 신문잡지가 400여 종이었고, 1920년 교육부도 교재에 백화문을 도입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신문화운동의 격랑 가운데 가장 현저한 성취를 이룬 것이 바로 신문체 즉 백화문체의 사용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신문학 운동에 있어서 1918년은 白話로 된 新詩가 널리 실험되었으며,⁵⁾ 백화문을 사용한 새로운 번역기법으로 근대 유럽문학작품이 소개되었고, 풍자조의 수필형식, 희곡운동이 시작되었고 근대적 단편소설인 노신의 『광인일기』가 출판된 해였다. 특히 『광인일기』는 실제 백화문을 사용하여 좋은 소설을 쓸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반전통 반유교의 사상혁신 내지 사상해방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신문화운동의 한 상징이 되었다.

4) 『신청년』은 제3권까지 1000권 인쇄하여 겨우 수백권 판매되어 작자가 커서 출판을 중단해야 할 정도였으나, 제4권이 발행된 1918-19년간 1만5,6천권 인쇄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汪原放, 『亞東圖書館與陳獨秀』, p.33, 왕기생, 2007;29 재인용.

5) 중국의 신문학운동은 1910년대 과장투 詩語에서 해방되어 평이한 언어의 시작법이 도입된 미국의 新詩운동과 일본의 신시와 신사조 문학개혁운동의 영향을 받은 당시 세계적 문학개혁 조류의 일부이기도 한다.

<사상혁명과 반전통> 신문체 사용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을 때 이는 곧 사상운동으로 연결될 것을 예상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문학의 실질이 사상에 보존되므로 구문학에 반대하면 구사상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공화정 실시에도 불구하고 민주가 발전하지 않는 실태를 국민들의 사상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본 신문화운동 지식인들은, 국가의 주인인 모든 개인의 독립·자주정신을 확립하기 위해 천부의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개성을 말살하는 중국 역사전통과 현실사회의 속박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전통문화와 사회예교질서를 부정하고 가족제도의 속박 철폐를 추구한 것은 중국의 가족제도가 천년간 삼강오륜의 강상명교를 바탕으로 중국의 전제정치를 지탱해온 문제의 근원이었을 뿐 아니라, 長者중심의 가족윤리로서 여성과 젊은층을 尊卑 관계 하에 노예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억압해 왔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⁶⁾ 따라서 민주주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예'들을 인간으로 일으켜 세워야(立人) 하며, 봉건적 윤리도덕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打倒孔家店'을 외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사회에서 孔孟을 전복하는 것, 삼강오륜의 倫常을 제거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기본틀을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으므로 신지식인들이 이와 같이 과격한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신문화운동 초기에는 윤리도덕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동의해도 공자와 유학 내지 유교를 만악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孔家店 타도'를 외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과연 신청년그룹 신지식인들이 공자를 부정하고 유가사상을 전면 부정하였는가에 대해서 중국학계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즉 그들은 예교질서를 집중 비판하였는데 이는 원시 유교가 아니고 정통사상으로 독존의 지위에 오른 유학, 나아가 宋明理學 전개 후 유상체계에 대한 공격 즉, 삼강오륜을 핵심으로 한 유교의 윤리도덕과 이 道를 담는데 결사적이었던 구문학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신문화운동이 전면적 반전통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⁷⁾ 유학을

6) 吳虞, 『家族制度爲專制主義之根據論』, 『吃人與禮教』, 각각 『신청년』 2권 6호(1917), 6권 6호(1919).

7) 王元化, 『爲五四精神一辯』, 『新啓蒙: 時代與選擇』, 顧昕, 1992; 90-92 참고. 耿雲

핵심으로 하는 전통윤리문화에 대한 반대, 반란, 전반적 부정이 아니고 공격하는 바는 그 전횡과 부패였으며, 타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교조주의적 광적 미신과 人性 압박의 잔인한 본질이지 전체윤리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張淸祥, 2000;45-46). 유가사상의 핵심인 仁·誠 등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 논거로 제시한다.

더욱이 유학의 역사가 지나 과거의 유학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아니고 종법사회의 도덕으로써 현대사회를 지배하려는 당시의 ‘역류’, 즉 孔敎의 창립 등 尊孔復辟 사고와 행태에 대한 비판이며, 공자 배격이 아니고 공자가 역대군주를 위해 만들어준 이상적 권위를 배격한 것이며 전제정치의 영혼을 배격한 것⁸⁾이었음을 강조한다. 진독수도, “孔學의 가치에 탄복하지 않음이 없지만” 유일한 정통이 되어 ‘악용’된 점과 특히 현대 민주주의와 부합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⁹⁾ 호적이, “研究問題, 輸入學理, 整理國故, 再造文明”을 주장한 것은¹⁰⁾ 中西 문화의 결합으로써 신문화를 창조하는 기본정신이 아닌가 묻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당시 신문화 추진세력의 의도는 전반적 부정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문화라는 것은 유기체적 전체이기 때문에 의식형태면에서 볼 때 체와 용을 분리할 수 없는 전체로서 서양 근대문화는 긍정 수용하고 중국 전통문화는 비판 부정하는 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 반전통주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면적 반전통이 아니었다 해도 공자의 도가 현대사회생활에 적절치 않다는 점, 봉건적 전제정치의 이념이며 유가 윤리강상은 개성을 말살하는 노예도덕이어서 현대사회의 자유평등의 윤리정신과 배치된다는 것이 5·4신문화인의 인식이었고 전통문화의 핵심 부분에 대한 반란이었다는 점에서 의식형태면에서 전반적 반전통정신이 중국인의 의식과 심리구조 속으로 진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¹¹⁾ 물론 전통 중에서 궁

志, 1989; 91-117, 嚴家炎, 1989; 133-8.

8)李大釗, 『自然的倫理觀與孔子』, 『甲寅日刊』, 1917.2.4, 『李大釗文集』上, pp. 263-4 재수
록.

9) 진독수, 『再鑒常乃德』, 『獨秀文存』, 卷3; 38-39.

10) 胡適, 『新思潮的意義』, 『新青年』7권1호, 1919.12.

정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중국 만의 전통이 아니라 모든 문명의 도덕체계에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54신문화운동 이전에는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 물질기술과 제도를 서양으로부터 학습해야 한다는 태도였고 민주를 주장하되 중국 고대 전통에 결부시키는 태도였다면, 54'문화혁명'을 통해 전통을 부정하고 서양의 가치를 긍정하여 서양의 가치가 중국인의 정신과 심리구조 속으로 진입했다는 점을 큰 의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통 정신'으로 표현되었지만 전반적 '반전통운동'으로 귀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후술하는 대로 전통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부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반대파는, 삼강오륜은 본래 공자사상의 본지가 아니므로 공자유학사상과 漢學 유가의 공자의 도를 구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호적은 “바로 2천년간 개인을 말살한 예교법제가 모두 孔丘의 초패를 걸고 있기 때문에 孔丘의 초패를 끌어내려 부수어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고 재반격하였다.¹²⁾ 진독수도 원시 공교와 송대 이후 유학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며, 준비귀천을 구분한 원시유교의 禮에서 삼강오륜이 나왔으므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이택후(김형중 역), 1992; 130-1). 이와 같이 격렬하게 비판한 이유는 유학이 이천년간 발전 변화하며 형성된 인습이 뿌리 깊고 타성이 강하며, 특히 통치계급에 의해 전제정치를 옹호하고 국민사상을 禁錮하는 봉건적 예교로서 역할을 수

11) Lin, Yü-sheng(林毓生)의 *The Crisis of Chinese Consciousness- Radical Anti-traditionalism in the May Fourth Era*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9) 가 신문화운동을 의식형태로서의 전반적 반전통으로 파악한 대표적 연구이며, 이에 대해 주6)에서 언급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반론들이 임육생의 '의식형태의 반전통' 의미를 부정확하게 파악한 면이 있어 다시 林은 『對五四時期思想啓蒙運動的再認識』(『논문선』1989; 139-146)에서 재반박을 펴. 許紀霖도 整體結構에서 전통을 부정했다고 보고, 그 중 부분적 취사는 가능하지만 급진파가 전반적으로 부정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동조한 것이 신문화운동의 대세라고 파악하였다.(『“五四”反傳統的再反思』, 顧昕, 1992;103-6 참고.) 이택후도 ‘철저하게 전통과 결별한 그 격렬한 새 모습과 방식은 새로운 성질을 가져왔다’며 이전 계몽운동과 다른 ‘철저성과 전체성’을 인정하였다.(이택후, 『啓蒙과 救亡의 이중변주』, 김형중 역 『중국현대사상사의 굴절』, 지식산업사, 1992, pp. 14-15)

12) 호적, 『吳虞文錄』序, 『胡適文存』一集, 黃山書社, 1996, pp. 582-4.

행해 왔기 때문에 현상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과격한 조치가 필요하다(矯枉 必須過正) 것이다. 또 전통과 현실의 복잡하고 특수한 관계로 인해 경제와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尊孔復古가 다시 살아나는 현실과 당시 역사적 위기감으로 인해 유학에 대한 논리적 학술적 검토가 어려웠던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진독수는, “國粹의 손실은 견딜 수 있지만, 현재 및 장래에 민족이 세계의 생존방식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멸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우환이 깊고 절박하여 문제 제기방식도 극단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新舊 논쟁> 신청년그룹의 과격한 반전통적 문제제기에 대해 당대 저명한 古文學者인 林琴南이 신청년동인을 비난하는 소설형식의 글을 『新申報』에 게재하였고, 蔡元培에게는 편지를 보내 『新青年』과 북경대를 공격하고 정치적 압력까지 동원하여 ‘전통을 파괴’하는 교수들을 국립대에서 해임시킬 것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채원배는 학술의 자유를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학계 명사 두 사람의 논쟁으로 세인의 주목을 끌었지만, 사실 구파와 신파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공자와 유교 비판의 선두였던 오우는 문화혁명에 반대하거나 보류 태도였고 장병린 같은 정치적 급진파도 문언체문학을 옹호하였다.

구파의 상징 인물 중 하나로 인식되었던 錢穆의 경우도 서양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아니었으나 구파 전통문화의 깊은 이해를 기초로 신문학과 신로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백화문을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연구하여 지방 방언의 발음이 달라 소리와 뜻에 있어서 字聲과 語聲의 차이, 字義(문의)와 語義의 차이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백화문이라는 용어보다 新體文이라는 용어 사용을 주장하였다. 역사는 민족문화의 과실이므로 역사 위에서 연구해야 민족의 생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형적 보수적 입장이었지만, 서양문화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였다(印永淸, 1996; 68).

신문화운동에 대한 반대파들은 전통적 문어 문체 및 유교와 구윤리를 옹호하며, ‘국학이 무너지는 현실을 개탄하여’ 『國故』잡지를 발간하였다(1919.3). 이들은 완고파 아니고, 무정부주의 지도자 劉師培와 반청혁명파 黃侃 馬敘倫, 그

리고 梁漱溟 등 급진적 정치입장 또는 사회개혁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 고대 윤리와 문명에 복귀함으로써만 중국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단순히 전통에만 집착하려 한 전통주의자는 아니었고, 국체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려 하였다(L. Schneider, 1976; 62-66). 신문화 지식인의 유교 배척과 문어체 문자 배격등 전통타파 주창이 과격한 방식으로 제기되는데 대한 우려와 반발이 적지 않았다. 대다수 기성세대 지식인들은 전통문화의 우수한 점을 존중, 보존하면서 서구문명을 수용하여 신문화를 창조하자는 입장에 가까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신문화운동에 대한 또 다른 반대파는 杜亞泉을 위시한 『東方雜誌』파였다. 1910년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동방잡지』는 신문화운동 초기부터 그 서양화 추구 경향을 비판하며, 동서양문명은 정적 또는 동적이라는 성질이 다른 것이지 수준의 차이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동적인 도시문명의 폐단 역시 적지 않음을 지적하였다.(『靜的文明與動的文明』, 『동방잡지』, 1916.10) 또 1차대전 중에도 전후 서양문명에 반드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며 중국이 전통 정신과 도덕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戰後東西文明之調和』, 『동방잡지』, 1917.4) 그는 고유문명과 서양문명을 융합하자는 문화조화론을 제기한 문화보수주의의 선구자였지만, 당시 별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高力克, 1996; 362-3). 그러나 5·4운동 후 민족주의 정서의 고양과 1차대전 후 서양의 물질문명에 대한 회의, 그리고 신문화운동의 과격성에 대한 반발로 인해 신전통주의와 문화보수주의 경향이 지식인 사회에서는 흥기하여 『신청년』의 주장과 방식을 비판하였다.

1922년 1월 『학형』잡지를 발행한 梅光迪 吳宓 등 문화보수주의 지식인들 역시 중국전통문화를 주체 본위로 하여 서양문화를 융합 조화하여 중화민족의 문화계통을 증진하자는 입장으로 다분히 민족주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鄭大華, 2005; 132-3). 전통문화에 대한 옹호는 맹신 아니고 존중에 입각한 선택적인 것이었고, 중국의 전통에 집착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리스 고전문화를 비롯한 서양 문예이론 등 인문주의를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서양으로부터 배우되 정신학문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지만, 전통사상의 핵심부분은

오랜 역사적 축적 중 형성된 진리로 파악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¹³⁾ 학형파가 청년년 그룹의 신문화운동을 비판한 것은 편벽과 간단화, 감정적 처사와 ‘상품 광고’ 같은 선전식 운동 전개 방식으로 문화를 새로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백화문을 확대 사용하더라도 고문을 폐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전통과 현대의 대립을 강조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고 전승관계를 중시하였다. 문화란 고급의 사상 언론의 가장 정미한 것이기에 傳承 중의 創造를 통해 합리적으로 변천할 수 있다는 전통문화의 ‘保守者’들이었다(高力克, 1996; 361-370, 吳方, 2000; 306-319).

문화보수주의 진영의 이러한 반격은 5·4운동 이후의 애국주의 정서와 결합되어 신전통주의 학술을 발전시키고 기성세대 지식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청년층에 확산된 신문화운동의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학형』잡지는 1933년까지 11년간 79기를 발간하였지만 세상의 주목 받지 못하였고, 젊은이들은 고전주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5·4운동 직후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결성된 단체와 수백종의 출판물이 신사상 고취와 백화문 사용을 지지하였고, 학생과 교사, 또는 교사와 교장간 신구문화의 충돌이 비일비재하였다. 이것은 사상적 입장이나 이념차의 요인도 있지만 당시 근대적 교육의 확산에 부응할 수 있는 근대적 지식 특히 과학지식을 갖춘 교사가 태부족이었고 교장급은 특히 고루한 구지식인이 많아서 신사상이 주입된 학생이나 젊은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전 같으면 감히 스승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전적 언행을 하지 못했으나 젊은이들의 태도가 바뀐 것을 연장층에서는 젊은이들이 ‘自高自大’하여 복종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만을 느껴 충돌의 여지가 컸던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세대 갈등은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세대 간에 폭발하였으며 특히 중대사인 진로와 결혼문제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다(후술함).

13) 『학형』파는 대개 미국 유학파로서 하버드대에서 신인문주의 대가인 바비트(Irving Babbitt)에 사사하여, 역사에서 變하는 부분은 역사 발전에 의거하여 수정해야 하며, 常은 역사의 축적 가운데 형성된 진리로서 세계적 의의가 있는데,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전통사상의 핵심부분인 常이라고 주장하였다.

3. '5·4정신'은 민주와 과학인가?

과격한 반전통 문화운동은 출로가 막혀있는 듯한 정서 속에 괴로움을 겪던 청년층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강고한 전통의 권위를 부정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도 청년층에 대한 영향은 막대한 것이지만, 정치 사회 문화를 구조적으로 지배해온 유교의 전통적 가치체계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체계는 어떤 것인가? '신문화'란 과연 어떤 문화인가?

청년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 『청년잡지』를 발간하며 진독수는 발간사격인 『警告青年』에서 노예적 보수적 퇴영적 쇠국적 형식적 공상적이지 말고, 자주적 진보적 진취적 세계적 실리적 과학적 태도를 가지기를 촉구하면서, 몽매상태를 벗어나려면 즉시 科學과 人權을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16년 『신청년』으로 개명하면서 쓴 『신청년』은 文弱하며 昇官發財를 통한 물질로써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구청년'에 대비되는, 건장하여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남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조성하며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사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를 거론하였다.

5·4신문화운동의 기본원칙은 중국전통문화에 반대하고 서양근대문화를 수용하는 것이었고 서양근대문명의 핵심요소를 민주(인권)와 과학으로 인식했다면, 서양문화의 新을 취해 어떻게 신문화를 건설하느냐가 근본문제였을 것이다. '신청년' 지식인들이 인식한 민주와 과학은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히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신문화와 어떠한 신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민주와 과학을 5·4정신으로 간주하지만 『신청년』에 막상 민주주의와 과학을 주제로 한 관련 논설이나 문장은 매우 적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창간호에서 '과학과 인권'을 제기하였듯이 신청년 초기에는 인권 또는 개인주의를 주제로 한 글이 많았다. 사실 진독수는 민주를 부르짖을 필요도 없이 누구나 그것을 희구하고 있었기에 그는 『신청년』을 통해 민주를 가능하게 만들 정신과 태도 확립을 위한 인권사상을 고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진독수는 프랑스 계몽

사상에 특히 강한 사상적 친화성을 보였고, 프랑스문명이 인류에게 선물한 3대 공헌 즉 라파예트의 인권설, 라마르크의 생물진화론, 생시몽과 푸리에르의 사회주의가 없었으면 세계는 여전히 흑암 중에 있을 것이라 할 정도로 선명하였다. 특히 루소식의 인민주권론에 입각, 인민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진독수와 고일함의 글이 계몽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신청년』 초기 2-3년간은 自由와 人權을 핵심적 주제로 다루었다. 정부당의 압계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소극적 성향의 영미권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크의 권리보호설은 물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내지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의 독립선언에 모두 직접 영향을 미친 사상적 근원이기에도 고일함 진독수 등 신청년 지식인들도 자신의 사상적 자원으로 삼았던 것이다(高力克, 1997). 이는 영미권의 개인주의 사상에 대한 동조로 나타났고,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반유교 반전통 문화운동을 발전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조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 1918년 무렵이다. 개인주의 사상을 고취하던 고일함의 논조가 변하여, 18세기 유럽의 천부인권설이나 개인주의 학설은 이미 그 시대가 지났으며 개인주의에서 국가주의, 다시 세계주의로 정치사상이 변하고 있다. 계급적 다수적 공리주의로부터 평등적 전체적 공리주의로 이행하고 있고 또 엘리트민주주의로부터 인민민주주의로 전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 로크의 권리보호설을 긍정하던 고일함의 이러한 변화는 호적이나 진독수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소아와 대아를 구분하거나 정신적 개인주의가 제기되며 사회의 공공 행복의 목적을 도모함으로써 소아의 행복을 도모한다는 인식은 개인본위로부터 사회본위로의 변질을 드러낸 것이다.

국가의 부강을 위해 민주를 추구한 청말 변법유신운동의 강유위 양계초 담사동에게도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전제를 반대하고 민주정치제도를 요구한다는 양면성이 내재되어 있었고, 오사시기 진독수 호적李大釗 고일함에 모두 공통한 양면성 성향 즉, 개인주의와 집체주의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

14) 高一涵, 『近世三大政治思想之變遷』, 『신청년』 4권 1호, 1918.1.

을 수단으로 보는 태도는 목적으로 보는 관점 보다 훨씬 초월하여, 개인이 전통 사상문화의 엄격한 속박에서 벗어나야 함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민족주의 목표의 달성을 촉진한 것이다(Lin, Yü-sheng, 1973; 23-26). 5·4운동 이후 개인보다 사회·국가·민족을 강조하는 집체주의 경향이 강화되어(張灝, 1999; 21-24), 애국적 개인주의 자유관념이 직접민주관념과 결합되어 사상계의 급진화를 초래하였다. 인민의 평등한 권리와 적극적 참정을 강조, 민주주의 경향 유포아 경향이 강해져갔다. 도덕적 당위 또는 이상주의가 역사적 현실을 압도한 것이다(高力克, 1999; 61-65).

1918년은 신청년의 명성이 높아지고 신구논쟁이 시작된 시기이며 중국 신문학의 원년으로 삼을 정도로 문화혁명의 성취가 가시화된 해였다. 이미 1918년 1월호 신청년에 게재한 고일함의 글은 러시아 10월혁명 후 세계사조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며, 신문화운동의 사상적 진전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년의 자유주의 계몽운동에 심각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며, 진독수의 민주관도 소극적 자유·인권·정치민주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회·경제의 전면적 민주를 촉구하게 되는데 이는 인민민주주의적 지향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영국의 고전자유주의를 제창하던 고일함도 급진화하여 비평하는 태도로 바뀌었고,李大釗도 일찍이 영국과 프랑스의 혁명을 비교하면서 영국은 피도 흘리지 않고 프랑스혁명의 10배의 성취를 거두었다고 찬양하다가 프랑스혁명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급전환하였다.

진독수가 정식으로 德先生(데모크라시)과 賽先生(사이언스)을 제기한 것은 신청년의 급진적 반전통에 대한 비판에 응수한 「본지 죄안에 대한 답변서」에서였다. 민주와 과학은 만창이래 반복해서 주창된 지식계의 주류 주제여서 누구도 부정 못할 상황이었다. 진독수는 신청년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여, 민주와 과학 가치를 들어 그 권위를 빌어 비난을 막아, 신청년을 비난하는 것은 민주와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王壽生, 2007; 36-37) 신문화운동의 선명한 가치가 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와 과학이 과연 오사신문화지식인의 정신을 대변할 수 있나, 당시 지식인 중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니었던가? 신청년그룹이 방향을

재조정하고자 했던 가치 계통의 중심은 개인주의와 자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民主라는 단어의 포괄적이고 막연한 개념 중에서 특히 이전의 정치제도적 측면에 대한 관심 보다 근본정신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그 주체인 個人을 중시한 점이 신문화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것이다. 민주와 과학은 외면적인 用이고 개인과 자유를 핵심 體로 하는 가치관의 구체적 전개가 초기 신문화운동 추진세력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자유원칙으로써 전통의 권위주의에 반대한 사상 해방과 자유주의 요소가 5·4신문화운동의 진수이며 새로운 시대정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 개념과 중점이 변하고 개인과 자유보다 집단과 평등이 강조되면서 民主 자체가 體로 전화되었으며, 과학 역시 수단이 아니고 목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5·4애국운동 후, ‘신문화운동’이란 용어가 1919년 12월에서 1920년 1월 사이에 처음 사용되고 유행하기 시작할 즈음 호적은, 진독수는 “德, 賽 두 선생”으로써 ‘신문화운동’의 성질과 의의를 개괄”한다며, 자신은 ‘新思潮운동’의 근본취지는 신태도 즉 비판적 태도이며 일체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라며, 사회 정치 종교 문화상 문제를 토론하는 것과 서양의 신사상 학술 문학 신앙을 소개하는 것, 즉 ‘研究問題와 輸入學理’ 이 두 가지가 신사조의 수단이라 하였다.¹⁶⁾ 이는 후술할 ‘문제와 주의’ 논쟁 후 마르크스주의로써 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풍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지만, 전통의 권위로부터 해방을 추구한 오사신문화운동의 또 다른 기본 정신과 태도를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다. ‘모든 가치를 재평가’하는 ‘비판적 태도’는 이전의 학술방법과는 완전히 판이한 ‘과학적’ 방법으로서 이후 중국 학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모든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 신문화를 확립하려는 주체적 노력이며 근대 문화 내지 근대적 학술로의 진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신문화 건립에 다가갈 수 있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15) 黃克劍의 『五四文化價值取向論略』(『논문선』, pp. 394-410)과 馮契의 『五四精神與反權威主義』(『書林』, 上海, 1989-1)는 개인과 자유를 신문화운동의 핵심가치로 파악하며, 이는 사실 嚴復과 양계초를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고훈, 앞의 든 책(1992), p. 74.

16) 胡適, 『新思潮的意義』, 『신청년』7권1호, 1919.12. 丁守和 주편, 1999; 440-7 재수록.

기존 권위에 대한 맹신을 벗어나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는 정신과 태도는 5·4 신문화운동의 전통 부정의 측면과 신문화 건립의 측면을 연결하는 한 고리이기도 한데,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미신을 타파하는 '과학' 내지 과학적 태도의 의미로 인식되었다. 5·4시기와 그 이후 상당기간 문제로 남은 것은 (자연)과학 그 자체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과학에 대한 신뢰와 찬양, 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만이 소리 높은 현상이었다. 과학이 발전하기 보다는 과학주의가 팽배하여, 과학은 모든 생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이며 과학의 방법은 무궁무진 응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중국의 모든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영약'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즉 과학은 새로운 지식체계일 뿐 아니라, 과학의 정신, 과학의 방법, 과학적 태도, 과학사상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받는 '신앙'이 되었다.

빈약한 현실을 극복, 중국의 전도를 구하는 '무기'이며, 민주와 과학 "이 두 선생이면 중국의 정치 도덕 학술 사상상의 모든 흑암을 고칠 수 있고..."라¹⁷⁾ 믿는 새로운 문화권위, 문화가치체계의 핵심이 된 것이다. 전통가치체계에서 무소부재의 '天道'를 대신할 신세계관으로서 우주의 성질과 인간 사회의 성질을 같은 원리로써 이해하는 체계가 과학원리이며 '과학선생'이었던 것이다.¹⁸⁾ 救亡圖存을 위한 신가치체계 모색의 초조한 심리상태에서 그들이 발견한 가치에 대한 이상화 내지 절대화, 그것을 구하는 태도의 격렬함을 초래하였고, 본연의 이성적 합리적 정신을 상실하고 경직화된 교조가 되어 '儒學一統'을 대신하는 '科學一統'의 독단적 사상형태로 전화되어 버렸다.¹⁹⁾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用으로서의 민주와 과학이었던 신문화운동 초기의 성격이 바뀌어 민주와 과학

17) 진독수, 『本誌罪案之答辯書』, 『신청년』 6권 1호, 1919.1.

18) 張灝는 『五四運動의批判與肯定』에서 5·4시기 중국인의 민주와 과학에 대한 맹신 태도를 만능해결사 '德菩薩'과 '賽菩薩'로 비유하였다. 毛丹, 1994, 허기림 편(2000), 상권: 165.

19) 嚴搏非, 『新文化運動時期的科學主義思潮』, 허기림 편(2000) 상권: 188-190. 물론 과학주의가 중국에서 과학의 체계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1920년대말 이후의 일이었다.

그 자체가 추구해야할 궁극적 가치, 즉 體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신문화운동의 정신인 동시에 '5·4정신'이 된 것이다.

4. 신문화 건립의 성취와 한계

신문화 건설의 방법은 과학적 방법으로 '國故 정리, 일체가치 재평가'라는 소극적 측면과 서양근대문명의 주요 성과인 '과학과 민주'를 추구하는 적극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하였듯이 전통문화의 기본내용인 經學의 독단론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자유원칙으로써 구문화를 동요시키는 작용을 일으켰는데, 다음 단계로 신문화 건설의 목표를 성취하였느냐가 문제이다. 구전통의 철저한 제거를 표방하고 사람들에게 서양문화의 새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진정한 신문화 신사회의 건립면에서 성취가 없다는 비판, 심지어 5·4운동은 파괴는 있고 건설은 없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전체로서 서양문화 수용을 주장하며 수용을 위한 곤란은 연구하지 않았고, 서양문화와 사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결하고 있어 전체로서 서양문화를 파악하지도 결점을 해석하지도 못한 결과 서양문화를 수용하는 정확한 태도를 건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勞思光, 1979; 44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맹이래 道統은 동요되고 권위를 상실하였음은 경시할 수 없는 변화이다(洪峻峰, 1999; 60-64). 도통의 동요에 수반하여 經學을 중심으로 한 儒學—尊의 2천년 학통이 해체되어 국학연구 중 경사자집 4부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그 외에 통속문화까지 학술연구의 중요 내용이 되었고, 제자학은 경학의 부속품 위치에서 벗어나 전문화되어 갔고, 經史一體 개념 속에 경학을 위한 논증도구였던 史學은 신사학으로 발전하였다. 문이재도 개념이 부정되어, 문학 자신의 독립적 존재 가치 회복 옹호, 문학이 봉건적 도를 담는 것 부정할 뿐 아니라 사회정치에 봉사하는 도구 의미 부정되어 문통도 동요하였다.

전통문화에 대한 공격은 문화적인 자아비판인데, 5·4문화의식면에는 이성주의 색채가 있어 전통에 대한 엄격한 비판 배후에는 중화전통을 중건하려는 소원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5·4시기 분위기는 중국문화전통에 대해 근본적으

로 이성적 비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옛것 전통적인 것은 모두 공격하고, 새것 서양 것은 모두 긍정 옹호하는 일종의 문화적 극단주의 태도였다.²⁰⁾ 반우상주의 iconoclasm은 거부·부정의 태도인데 이는 이지작용이 아니고 감정작용이며, 진리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심리상 만족을 위한 행태로서 전통의 권위를 부정하여 질곡에서 벗어난 해방자의 쾌감을 추구하였지만, 다음 단계인 진리의 추구로 나아가지 못했다(殷海光, 1979; 454-5). 과격한 전통 비판은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를 너무 홀약하였고,民国혁명 이후에도 유학이 부활한 것은 그 사회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격한 全般西化 구호를 제기하여 보수적 지식인층의 반격을 야기했을 뿐 아니고 민족 자존심을 손상하여 일반인에 거부감을 조성한 측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행위방식을 바꾸었는가 생각하면, 오사운동이 고양한 계몽사상이 국민심중에 진정으로 깊이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사계몽해방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공교의 신문화운동이 소수지식인에 혁명의 씨를 뿌린 것 이외에 대다수 민중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측면도 사실이지만(河干之, 1989; 423-424), 지식인 청년 학생층에 뿌린 씨는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칸트 이래 서양의 계몽운동은 진리로써 종교 미신을 대신하며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각성의 의의라면, 20세기 중국의 계몽은 수천년래 강상명교를 파괴 배반하는 것이었고, 노예 근성을 개조해야 하는 최대 이유는 열강 압박에서 벗어나 보국존중을 최고 의의로 하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사상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전체 사회로 파급시키려는 반제애국주의 색채를 가지고 있어(閻潤魚, 2003;141-142) 5·4시대 중국에서는 정치가 최종 목적이고, 문화는 그 수단일 뿐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5·4격진파의 전통유가에 대한 태도는 '전부 부

20) '전반서화' 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30년대 문화논쟁시기이지만, 5·4시기 신문화지식인의 태도는 서구문화의 전면수용태도였다는 의미이다. 진독수는 학술연구나 토론이 아닌 전통 타도를 요구하는 문화적 혁명을 한다는 기세여서 이성적 연구나 토론과정을 허용할 여지도 없었지만, 그러한 정신 때문에 문화혁명이 급속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호적도 회고하였다. 호적, 『五十年來中國之文學』, 『胡適文存』二集, pp. 233-4.

정'과 상반되게도, 심층면에서 오사문화는 오히려 국가 민족 천하를 위해 근심하는 제세(濟世)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던 점에서 엄중한 전통주의의 부활과 재현을 보여준다. 서방 근대문화의 계몽은 개인본위이지만, 중국 5·4는 표층에서는 개인본위를 선진, 긍정, 추구하였으나 심층가치계통 속에는 강렬한 정치의미를 가진 社會本位 가치목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구전통 비판의 실질은 여전히 전통으로써 중국의 번영 부강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5·4격진파의 이러한 사고, 정신 태도 추구는 여전히 국가 사회와 민족 천하를 위한다는 사회본위적 전통정신의 발로이다. 일찍이 『청년잡지』1권2호에 자유와 인권을 고취한 高一涵도, 타국은 이미 '일치불란'의 시대로 진입하였는데 중국만 '일치일란'의 불행 중에 있는 것은 타국이 '자유, 평권, 인격, 권리'를 근본원칙으로 삼아 전력으로 보호하는데 중국은 전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일, 立國의 神髓"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立國의 동기를 설파하였던 것이다.²¹⁾

5·4신문화운동이 사상과 문화의 혁신이라는 방법으로 사회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바로 중국 전통적인 태도이며,²²⁾ 앞에선 보았듯이 유학의 권위에 대신하는 과학의 독단적 권위의 재정립이라든지, 봉건 예교의 인간압박 본질을 예리하게 폭로하여 계몽사상의 새로운 '도'를 담은 (문이재도) 작용을 발휘한 『광인일기』는 한편으로 백화신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지만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구문학의 굴레를 답습하여 문화보수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5·4시기 전통타파주의자들의 개인주의적 가치의 옹호는 인간의 천부적 가치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신념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민족주의적 목표 실현이라는 대의를 위한 전제체제 타도의 무기로서 매력이 컸기 때문에 1920년대 좌우

21) 고일합, 『近古國家觀念之相異概略』, 『신청년』1권 2호.

22) Lin Yi-sheng, 1979, pp. 1-5, 157-160 및 앞에 든 논문(1973)의 주된 논지. Lin은 이 시기 문화운동의 의의를 문화혁명이라 보고, 문화사상혁명이 사회혁명의 전제라는 주지주의는 모택동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였다. 耿雲志는 사상문화혁신을 역사변혁에서 우선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세계 모든 사상가에 공통된 것이지, 중국만의 전통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경쟁할 때 자유주의나 개인주의 가치는 곧 좌우의 이데올로기에 압도되어 민족주의 목적에는 더 이상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간주되었고, 급격히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²³⁾

정치적 목표를 문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현실적 이유는, 5·4시기 전통주의적 서화파든 문화보수주의자든 대학교수, 신문잡지 편집인, 사상가등 학자 문학가 기질의 사람들이어서 정당활동의 배경이 없어 정치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기의 정치 포부를 실현할 역량을 찾을 도리가 없어, 현실 정치 경제 사회제도 문제를 피해 사상문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구하였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4운동 이후 곧, 민족적 위기의식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 개조를 추구한 정치활동 방향으로 운동의 관심과 방식을 바꾼 그룹과 비교적 자유주의적 지향을 유지하며 문화 학문 분야에 치중한 그룹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조명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체계를 건립하고자 한 신문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전통을 근본으로부터 부정하는 태도는 이전에는 없었으며, 서양의 가치를 새로 건립하려는 가치체계의 핵심으로 설정한 시도도 이전에 없던 것이다.²⁴⁾ 이것은 '天下'적 세계와 문명의 해체와 새로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를 추구하였음을 의미하며(野村浩一, 1990;10-37),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신세대를 배출하게 될 것이었다.

23) 李澤厚는 민족주의적 위기의식(救亡)이 사상계몽의 명분을 압도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앞에 든 책(김형중 역, 1992), pp. 36-53.

24) 에컨대 양계초도 전통시대 儒教一尊을 비판하였고, 西學에 의해 中學을 반대하였지만 공자나 유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던데 비해, 신문화운동 지식인들은 공자와 유교 자체를 부정한 태도는 전면부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택후, 앞에 든 책(1992), p. 15, 佐藤慎一, 1996; 171-2.

5. 사회 변화에의 영향력; 신세대의 형성

봉건윤리 도덕에 대한 도전은 사회와 가정에서 구전통 구예교의 속박을 가장 심하게 받은 여성과 젊은층의 개성의 독립 자주를 옹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았던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청년 학생층과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삼강오륜의 반인간성에 대한 규탄의 모습을 띤 사상혁명의 영향이 현실에서 표출된 변화는 무엇보다 결혼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이 시기 자유연애 풍조와 함께 결혼자주에 대한 청년 학생층의 열망은 중매혼이나 부모들이 일찍이 집안끼리 정혼해 놓은 배필과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자식 인연을 끊을 정도의 강압적인 현실과 격하게 충돌하였다. 직업 선택과 결혼문제 같은 청년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 자기결정권이 없이 정해진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와의 인연과 경제적 도움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연을 끊으면서까지 정혼을 파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젊은이,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시집가게 된 신부가 가마 속에서 자살하는 등 結婚自主를 둘러싼 갈등과 비극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은 시대 풍조와 사상혁명의 충격적 계몽이 없었으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미혼자의 대다수가 자유결혼제를 지지하여 많은 가정이 갈등을 겪었지만, 실제 결혼과정에서는 본인과 집안 쌍방의 합의가 78%에 이른 것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²⁵⁾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았던 많은 경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청년들은 독신주의를 취하기도 하고 문학이나 예술세계에서 정신적 개인주의를 추구하기도 하는 반면 사회개조를 위한 사회운동에 종사하거나, 나아가 급진적 사회변혁을 위한 혁명에 투신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결혼문제를 둘러싼 부모와 자식 세대간 갈등은 가족내 봉건적 질서의 부정을 의미했고, 가족관계의 변화는 젊은이들이 일찍이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학교

25) 陳學琴, 『學生婚姻問題之研究』, 『東方雜誌』18권 4-6호(1921), 潘光旦, 『中國之家庭問題』(상해:신월서점, 1929) 원계, 백영서, 1994; 142-5에서 재인용.

주변에 거주하게 되어 가족의 영향이 약화된 것도 관련이 있었다. 결혼문제 이외에도 부모-자녀간 봉양의 의무가 일방적으로 강조되던孝의 윤리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신청년' 지식인들은 전통적 구도덕이 편면적 의무를 강요하는 불평등한 도덕이라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효의 허위성 심지어 위해성을 지적하였고, 자식의 주체의식과 정신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며, 유가 윤리에서 개성을 희생시킨 제일보호 효를 다하는 것이었다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그들은 자식 세대가 태어난 것이 부모의 은혜가 아니었던 만큼 부모 조부모에 대한 봉양을 의무로 여길 필요없다거나, 존비의 관념에서 벗어나 상호부조적 책임을 가지며, 부모로서 자식을 대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호적은 전통 상례 중에 나타나는 효의 허위성을 비판하며 상례의 간소화를 주장하였는데, 예컨대 맞는 걸로 효를 가장한다는 것이었다.²⁶⁾

1920년대 청년층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결혼 후의 소가정제를 원하는 추세가 늘어갔지만, 여전히 부모(조부모)와 동거하거나 봉양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백영서, 1994; 144-5). 결혼과 가정을 둘러싼 윤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근기로서 급격히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도시 청년들은 부모 몰래 '문명결혼'을 실현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부모에게 존칭도 쓰지 않는 것이 신식문화인 듯 행동하여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봉건적 예교에 의한 개성의 압살, 부녀와 청년에 대한 압박을 비판한 신문화운동이 변화를 촉발한 것 이상으로 현실적 변화에 보편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청년층에 배태된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를 근저로부터 변화시킬 것이었다.

反운상명교의 사상혁신운동은 예교의 최대 피해자인 부녀에 대한 해방운동으로 연결되었고, 실제 여성 자신 보다 신문화운동 추진세력이 立人 즉 국민개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수천만 여성의 신생활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구생활에 대한 철저한 부정 의식을 일깨웠다. 특

26) 호적의 「我的兒子」, 「我對於喪禮的改革」, 오우의 「家族制度爲專制主義之根據論」, 「說孝」, 魯迅의 「二十四孝圖」가 모두 허식적 효를 비판한 글이다. 『中國現代思想史資料簡編』1982.

히 교육면에서 여학생에 대한 고등교육의 문호가 열리고 전국의 중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변화하는 등 여성교육면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신사상이 고취된 교육받은 여성이 크게 배출되었다. 1917년 전국교육회가 북경정부 교육부에 제출한 <女子教育議案>이 이듬해 통과되어 각성에서 운영하도록 권장되었으나 고등교육은 극소수 교회대학 외에는 여성에게 문호가 열려있지 않았다. 1919년 5월 북경대에 대해 女禁(여학생금지)을 해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일단 청강생을 받기 시작하고 곧 정식 남녀공학이 실현되었다.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구예법과 가정에 갇혀 있으려 하지 않았고, 교직과 우정국 내지 상업경영활동에도 진출한 사례가 있지만 경제적 독립을 위한 조건이 형성되기엔 긴 시간이 필요했고, 가정내 의식구조도 혁신운동에 상응하는 변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녀들이 해방을 획득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자유연애 결혼자주 부부평등의 관념이 지식인층에는 깊이 파고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실제 결혼에서는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정신적 연애나 정신생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중국의 경제 사회구조상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연애에 의한 소위 ‘文明結婚’을 한 지식인들의 경우에도 결혼 후 속박은 변하지 않았고, 속박을 선택할 자유를 얻은 것이라는 자조가 나왔으며 인격의 독립과 존엄은 확립되지 못했다. 소수의 지식여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적 문화적 영역의 부녀해방운동은 오히려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불만과 회의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정도였다.²⁷⁾

1920년대 호남성 같이 여성에 참정권이 인정된 지역도 있지만 여성생활에

27) 예컨대, 여성작가로서 冰心은 친구의 갈등 현실의 벽에 부딪친 여성 등을 다룬 사회성 짙은 소설을 발표하였고(윤혜영, 2005) 盧隱은 『前塵』, 『勝利以後』, 『何處是歸程』 등 신식가정을 주제로 한 소설을 많이 썼지만, 대부분 ‘5·4부녀해방운동’의 불철저성과 허구성을 폭로하고 신식가정에 대한 회의와 우려를 표현하며, 비극의 원인이 가정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을 파헤쳤다(王小春, 2000; 92-5). 또 張愛玲의 <五四遺事>도 ‘전통의 폐습’과 타협하며, 해방과 변화를 시도할 힘도 의지도 없는 오사세대를 그렸다(유형규, 2006, pp. 123-7).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上海에서는 근로여성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광대한 노동여성에 대한 여성의 성별 차별 철폐 같은 혼인 문제 이외의 부녀문제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유연애 풍조 속에 ‘해방’된 남성들이 도시의 신여성과 결혼하고 고향의 아내를 방기하는 ‘棄婦’현상이 적지 않아, 비참한 피해 여성의 존재는 당시 부녀해방운동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王小春, 2000; 95-6).

破舊立新 즉 반전통과 신사상 건립의 신문화운동은 새로운 가치관 정립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일반민의 일상생활의 구조를 변화시키려면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특히 가족관계를 둘러싼 변화는 도시의 일부 급진적 지식층과 청년층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요지부동인 듯했다. 개인주의 선양의 선구자들은 호적의 경우처럼 전통적 결혼 또는 전통적 유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전통적 효에서 벗어난 청년들은 기존질서에 대해 철저하게 부정하며 급진사상에 경도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움을 예술세계 특히 문학세계에서 정서적 위로와 자아실현 위한 공간 찾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혼 등 가족윤리 관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각성한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현실에서 느끼는 고민 방향, 나아가 허무감이 1920년대 중국문학에서 발견되는 감상주의와 심미주의, 그리고 인간 개인 내지 개인의 인식의 중요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개인주의, 주관주의로 나타났다(梁敏, 2000;22-23, 백영서, 1994; 207-9).

6. 신문화운동의 변모; 공산주의 혁명의 길

<마르크시즘에의 경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당대인들이 5·4운동을 신문화운동의 발단으로 인식한 것은 백화문 사용의 확산, ‘민주와 과학’을 표방하는 수많은 단체 결성과 간행물 발간, 서구사상과 문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 등 ‘신문화’를 지향한 사고방식과 문학의 변화가 중국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5·4운동을 거치며 민족주의적 위기의식과 중국사회를 빠르고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초조감은 사회개혁 내지 혁명운동에 대

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20세기초 중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광범한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지만, 러시아 10월혁명의 성공과 1차세계대전의 종결 후 중국에도 사회주의연구회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가 생기는 등 보다 적극적 관심으로 고조되어 갔다.

앞에서 『신청년』에 발표된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글의 논조와 관점이 1918년경부터 변해갔음을 논하였는데, 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입장에 선 글을 발표하였다.李大鈞는 「서민의 승리」와 「불세비즘의 승리」에서²⁸⁾ 세계혁명의 새로운 방향을 서민(민중)의 주체적 역할에서 찾았고, 1차대전의 전승은 연합국 병력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정신의 승리 즉 인도주의·평화주의·자유·민주·사회주의·불세비즘·적기·세계노동계급, 그리고 20세기 신조류의 승리라고 주장하였다. 『신청년』6권5,6호(1919.5, 11)는 마르크스주의 특집호로 꾸며 그 이론을 소개하였다. 진독수와李大鈞는 1918년 12월 『매주평론』을 창간하여 국내 군벌정치의 반동성과 제국주의와의 결탁을 폭로하고, 러시아 10월혁명과 세계혁명사조를 소개하였고, 마르크스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상을 전파하였고, 노동문제와 노동운동을 비중있게 취급하였다. 「신기원」이란 글에서는 ‘전세계노동계급이 연합하여 자본계급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북경대학생들이 발행한 『新潮』(1919.1 창간)도 러시아10월혁명을 ‘새로운 세계적 조류’라 하며 사회혁명의 도래를 예견하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사회를 상정하였다.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한 무정부사상의 유행으로 노동과 노동자 나아가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도 바로 신문화운동 시기와 일치된다. 특히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톨스토이의 범노동주의 영향 하에 지식인 내지 학생층이 육체노동에 대한 오랜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개조를 위한 자기개조의 중요성을 각성하였다. 또 오치휘나 이석증 등 무정부주의자들 주도 하에 전개된 留法勤工儉

28) 두 편 모두 『신청년』 5권 5호, 1918. 10(실제 출판일은 1919.1)에 게재되었음. 『李大鈞文集』上, pp. 593-603.

學運動은 뜻있는 젊은이들에게 노동과 학업의 병행을 위한 프랑수유학을 주선 하여, 결과적으로 주은래 등소평 등의 공산주의 활동가를 배출하였다. 국내에서도 工讀互助團運動이 전개되어 빈곤한 학생이나 가족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청년층이 일하면서 학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영을 받았다.

사실 신문화운동의 정신인 개인의 독립과 자유, 권위의 부정과 해방의 제창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주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정부주의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²⁹⁾ 동시에 무정부주의의 평민과 노동의 중시, 사회 평등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적 사회개조사상 등은 공산주의와 공유하는 부분이다. 당시 중국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조속히 신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갈망이 컸던 만큼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정치적 낭만주의가 오히려 만연하였는데(蕭功秦, 2000; 371-6) 아나키즘은 중요한 사상적 자원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아나키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사조를 가로지르는 사조가 민주주의였다(顧昕, 1999-2; 507-522) 반드시 계급이론에 의거한 것은 아니고, 압박 받는 다수의 '하층민중'에 대한 도덕적 동정심 또는 타락한 도시에 대비되는 순박한 농촌생활과 농민에 대한 향수, 자본주의와 강권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민주주의의 정서를 확산시켰다. '평민정치' '평민교육' '평민공장' '경제의 평민화' 또는 '학술의 평민화' 등등 평민주의의 대유행을 가져왔고 이것이 1919년 전후 Democracy의 번역어가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신청년』잡지의 인민주권론에 대한 강조,李大釗가 『서민의 승리』에서 노동자를 주도세력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논한 것은 모두 민주주의 조류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었다.

아나키즘 도덕의 기초인 노동과 호조 사상은 이 시기 지식인과 청년층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노동의 신성 의식을 주입하여 청년층의 사회의식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5·4애국운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민중의 힘에 대한 사회개조를 위해 '민중 속으로(到民間去)' 들어가 사회의식을 깨우치고 식자 능력을 키우는 노동자보습학교 대중교육 무료야학 평민야학 등 각지 학생연합

29) 중국혁명의 진전에 있어서 무정부주의의 의미에 관해서는 Dirlik, Arif, 1989 및 顧昕, 『無政府主義與中國馬克思主義的起源』, 『開放時代』, 1999. 4~6 월, 헤기림 편(2000) 하권, pp. 399-454 재수록 참조.

회가 주관하는 평민학교 운영이 1919년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청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념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정부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러시아 민수주의 같은 과격사상 일색이 되었다. 그들의 평민운동은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공산주의소조 활동과 연계되어 전개되었다.

1919년 12월 『신청년선언』은 『신청년』이 처음 종지를 발표한 것인데 신문화운동 사조의 전환 방향을 노정하고 있다. 서양의 죄악적 자본주의·박탈·경쟁·강권과 결별하고, 노동·호조·전사회 행복의 이상적 신사회 건설을 추구하며, 각파 정당과 관계를 끊고 민중운동사회개조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人民의 平等한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민주주의 개념의 변화는 ‘사회주의는 새로운 민주’라거나 ‘진정한 민주’, ‘확대된 민주’로 인식하는 사회주의민주로 직결되었고, 나아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옹호하는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무산계급독재 옹호의 마르크스주의 지향으로 전환하였다(강명희, 2004; 158-170).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급진화 속에서 신문화운동 초기의 ‘데모크라시’는 방기되었지만, ‘민주와 과학’의 진정한 구현체가 될 ‘과학적’ 사회주의인 마르크스주의 속에 ‘민주와 과학’은 여전히 중요 가치로 살아남았다는 점이다. 사회실천 가운데서 自我를 실현하는 것이 ‘개인해방’이라는 인식은李大釗로부터 모택동에 계승되어 중국마르크스사상의 특색을 구성하게 되지만, 개인해방의 정신에서 이탈한 것은 자명하다. 이후에도 중국에서 자유주의적 서양방식의 근대화 모델은 다시 신문화운동 초기와 같은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사회적 토대가 없는 마르크스주의가 급속하게 수용되어 간 현상에 대해 신문화운동의 극단적 반전통주의와 문화적 급진주의, 아나키즘의 만연, 민수주의 경향, 전통적 대동사상의 영향 등 사상적 측면에서도 다각도로 해석되고 있다. 아나키즘과 공산주의는 사상적 공통분모가 많아 분명히 전자가 후자를 위한 길을 닦은 의미가 있지만, 아나키스트들은 정치투쟁이나 폭력혁명 계급투쟁 계급독재, 소련식 권력집중형 공산주의방식에 반대하여 논쟁(아나-불논쟁)이 전개되기도(1920) 하였으나 마르크스주의 확산 추세는 계속되었다.

<문제와 주의 논쟁> 급진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어 가는데 대한 경계심에서 온건한 사회변화 입장의 胡適은 「多研究些問

題, 少談些“主義”』를 발표하여,³⁰⁾ 모든 문제는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며 중국의 문제도 점진적으로 교육과 문화방면의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지 일거에 총체적 해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던 藍公武와 李大釗는, 모든 문제가 포괄적 구조 속에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연결된 문제들의 해결도구로도 또 문제들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없이 중국의 문제들이 따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호적은 '주의'가 가설과 도구로서 연구되고 선별적으로 채택되어야지 교조와 철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호적은 급진주의자들의 무비판적 급진적 이념 신봉현상에 대해, '孔丘와 朱熹의 노예는 크게 감소되었지만 오히려 마르크스와 크로포트킨의 노예가 증가하였다'고 개탄하였다.³¹⁾

이 '문제와 주의'논쟁으로 결국 신청년그룹은 급진적 사회 개조 방향으로 나간 공산주의자들과 점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자유주의 경향의 지식인들, 두 진영으로 분열된 모습이 나타났다. 진독수는 『신청년』7권6호(1920.5)를 「노동절특집호」로 편집하였고, 1920년9월에는 「談政治」에서 사유재산제도 폐지와 계급투쟁의 불가피성을 확증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선언하였다(『獨秀文存』; 541-556). 바로 『신청년』잡지가 上海로 출판지를 옮기고 上海共產主義小組 기관지 성격으로 개편된 시점이었다. 호적 고일함 등은 북경에서 별도로 자유주의적 지식인의 정론지인 『努力周報』를 창간하여(1922.5) 신문화지식인의 분열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문화운동의 종식을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1921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신문화운동 그룹의 제후가 끝나고, 『신청년』의 성격이 바뀌어 더 이상 새로운 가치체계 건립과 문화건설이 초점이 아니고 사회개조의 실천적 혁명운동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30) 신문화운동의 동료 전사였지만 이미 마르크스주의로 경도되었던 陳獨秀가 오사운동 과정에서 투옥된 동안 호적이 편집을 맡고 있던 『매주평론』(1919년 7, 8월에 발표하였고, 그후 李大釗와 반론과 재반론이 계속 『매주평론』에 게재되었다.

31) 胡適, 「我的岐路」, 『胡適文存』二集, (1924 초판) 黃山書社, 1996; 333, Grieder, 1970; 99-102.

이후에도 호적은 중국문제의 근원이 문화에 있다고 보고 ‘整理國故’를 제기하며, 비판적 정신과 과학적 방법에 의거한 『中國哲學史大綱』을 저술하였다. 신청년그룹의 격렬한 전통비판은 유학과 전통문화에 대한 재성찰의 계기가 되었고, 또 우상과 권위에 대한 파괴운동 중에 문화유산 중 정수도 매우 홀시되었음을 깨닫고 중국 전통에서 옥석을 가려 현대에 필요한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학술 태도가 진전된 것이다. 전통적 고급문화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도 확대되어, 호적과 고힐강 등은 『홍루몽』 같은 소설과 민간전통과 습속 등 민중의 창조정신을 재발견하는 학술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철학사, 사상사, 중국고대사, 불교사 등 전통문화유산 정리를 위한 주요 학술 업적이 출간되었다. 이들 중에는 고힐강 같은 반전통주의 의고파 학자도 있지만, 중국의 전통문화 내지 동양문명을 옹호하는 국학파 또는 문화보수주의 입장의 학자들도 중국의 역사 철학 문학에 대해 비판적 학문방법을 사용하여 경전과 전통을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역사연구로부터 벗어나 중국의 근대적 학문 발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5·4이후 학술사상계는 ‘정리국고 일체가치 재평가’ 추세 속에서 분열되어 ‘小고증’에 위축되어 거시적 논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사회 지도의 책임을 수행 못하고 철학의 빈곤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余英時, 1979; 419, 이택후(김형중역), 1992; 123-4). 다른 한편, 신문화운동의 반전통과 반공교가 대다수 민중과는 유리되었던 운동의 한계가 정리국고와 대중화 시도에 의해 해소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신전통주의 흥기>파리강화회의 후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공리와 자유 민주에 실망한 신문화운동 세력이 한편으로 마르크시스트로 변신하여 갔고 청년층 사이에 급진주의 혁명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의 물질주의 문명에 대한 재인식으로 인해 중국의 신전통주의가 보수적 지식인 사이에 재기하였다. 신전통주의는 무엇보다 양계초가 유럽여행에서 목도한 유럽사상계의 이성주의 문화정신의 위기, 서양 현대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통해 과학혁명이 초래한 도덕 상실의 신앙위기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일찍이 ‘新民’論의 계몽의 맹장이었던 그는 『歐游心影錄』을 발표하여, 신문화운동이 고양한 과학과

현대서양문명의 과학만능주의를 재평가 비판하고, 5·4시기 위신이 땅에 떨어진 유학의 정신가치에 대해 변호한 것은 문화보수주의의 재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청말의 중체서용론이 서양의 과학기술로써 중국의 전통가치를 지키는 부강을 도모한 것이었다면, 양계초의 문화보수주의는 전통의 인문가치로써 근대화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정을 규제하여 인간의 심신이 조화를 이루는 자유발전을 확보한다는 논리로 변모된 것이었다.³²⁾ 그는 서양과 다른 중국정신을 찾아 중국문명과 전통의 현대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禮와 같은 행위 표준이나 사회조직 같은 외재적 영역이 아닌 소위 '내재영역'의 사상방식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주희와 왕양명의 성리학파 대승불교철학의 영역이었다. 良知는 서양의 자유사상보다 더 근원적인 우주론을 기초로한 도덕적 자율성이며 정신과 도덕의 자아개조 역량이라고 보았다. 중국 정신의 우월성을 파악한 관점을 통해 민족주의적 만족감을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현대신유학의 발전을 촉발하여 학술사상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앞에서 신문화운동의 반전통주의에 대한 반대파로서 언급한 학평파 문화보수주의자들의 중국문화와 서양문화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中西를 관통하려는 시도, 梁漱溟 문화철학의 동서문화의 성격 차이에 관한 고찰 등은 모두 문화보수주의 조류의 일환이다. 양수명의 『東西文化及其哲學』에 대해 호적이 비판하여 '東西文化論戰'이 일어났는데, 신전통주의자로서 양수명은 양명학에서 直觀을 정신과 도덕의 본성으로 파악하고 서양문명과의 차이를 논하여, 역시 신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1923년 張君勱가 『人生觀』 강연에서 인생철학의 정신가치를 강조하며 과학으로써 인생의 내재적인 주관적·직관적·자유의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당시 과학만능주의 풍조 속에서 소위 『科學與人生觀論戰』(또는 科玄論爭)이 일어나서 과학자 丁文江을 비롯한 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여한 논쟁이 되었지만, 과학파들이 견지한 唯科學主義 논리

32) Benjamin Schwartz, "Themes in intellectual history: May Fourth and after"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12, Ch.8, pp. 437-9, 고력극, 앞에 든 글(1996), 허기림 외편(1994), pp. 363-5.

를 인간과 사회의 어느 영역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냐가 논쟁의 초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이후에도 백화문 사용이 확대되고 동서문화논쟁과 과학과 인생관 논쟁(과현논쟁)이 전개되는 등 문화적 문제에 대한 논란과 변화는 지속되었지만, 주로 상층 지식인들의 전통과 현대화를 둘러싼 논쟁의 성격에 속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신문화 건설을 추구하는 ‘운동’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에 호적 등은 다시 ‘전반서화’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본위문화론’이 제기되어 논전이 재연되었다. 결국 장기에 걸쳐 형성해온 인생태도 정서 가치취향이 사유와 행위방식을 결정하는 민족문화전통의 가치관이 봉건적 윤리와 도덕에 집중 포격을 가한다고 그 근거가 훼손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7. '5·4세대'는 누구인가? - 맺음말을 대신하여

신문화운동은 불과 4년 남짓 지속되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사상적 지향이 크게 전변하였고, 강고한 전통에 대한 반란 같은 격렬한 방식의 부정과 서구화 지향의 태도는 자연히 파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서구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의 노력은 수십년간 지속되고 심화되었지만, 전통적 가치와 윤리 도덕을 전면 부정하는 신청년그룹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성세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다. 그러나 반전통주의적 신문화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 가치체계의 권위가 동요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황제지배체제의 붕괴는 그 사상적 지주인 유학의 권위도 동요시켰지만, 수천년간 형성되어온 사회가치체계인 윤상명교질서가 몇 년 새 붕괴되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가치체계는 동요하고 새로운 가치체계는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문화’측은 孔敎를 국민정신교육의 기본내용으로 삼는 국교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반대한 ‘신문화’측이 모두 가치체계 재정립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어난 것

이었다. 원세개의 제제운동과 淸帝복벽 시도가 모두 실패한 데서 드러나듯이 민주공화제에의 지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정의 정체와 유학의 가치체계가 배치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민주공화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사실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한 유가사상과 윤리를 ‘불변’의 진리로 간주한 가치관이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상호작용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신해혁명에 의해 민주공화정이 실시된 것도 중국의 사상 윤리 도덕 같은 문화가치체계를 體로 견지하며 정치경제 제도나 과학기술 등의 서양문물을 用으로 부강하고 독립적인 중국을 건립한다는 중체서용적 지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신문화운동의 반전통주의가 설사 전면적 반전통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통문화의 최후의 보루인 공자와 유학의 권위를 부정한 『신청년』잡지가 당시 중국사회에 준 충격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전면적 반전통과 같은 것이었다. 충격은 한편으로 보수적 지식인들의 비판과 반격을 야기하였고, 나아가 전통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심화시킨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청년학생층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전통의 권위로부터 해방되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터뜨린 것이었다.民国 이후에도 유학이 부활의 조짐을 보인 것은 여전히 사회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일이었다. 5·4반전통의 초점이 정신 비판이었는데 意識의 모든 형식과 내함은 정신 비판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체 민족의 성격과 심리에 표현되어 있고 현실생활에 체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儒學一尊’식의 권위는 확실히 붕괴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반전통 반공교 운동이 청년층의 정신세계를 변화시킨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즉시 사회에서 상응하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년층의 사상 변화를 통해 새 가치관에 입각한 신사회 신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년학생층의 사상적 변화는 반전통이나 인권 자유 민주의 서구 가치관을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민의 평등한 권리 관념을 강조한 루소사상과 마르크스레닌사상의 영향권 속으로 급속하게 진입하였다. 직접적 계기는

5·4운동과 러시아혁명의 영향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민수주의적 경향 같은 급진적인 동시에 ‘낭만적’ 정치사회사상이 만연되어 있었던 위에 민족적 위기의식이 가중된 현실상황이 사회개조에의 절박한 열망을 촉구하였고, 청년학생들을 평민교육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과 혁명운동에 투신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1920년대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함께 원하는 직업으로는 기업경영자, 사회개혁가, 교직 관련이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³³⁾ 흥미로운 결과이다. 기업경영자 지망자가 많은 것은, 비록 기업에의 취업 기회도 넓지 않았지만 당시 자본주의적 발전이 시작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다. 교직은 물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면서 교육을 통한 사회의 점진적 변화라는 청년의 희망을 실현할 수도 있는 직종이며, 사회개혁가는 당시 만연한 중국사회 개조에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정부주의 상호부조론의 영향으로 지식인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한 것도 청년층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사회개혁 운동에의 투신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 사회개조에의 지향은 개인의 개조를 추구한 계몽운동이 민족위망 시기의 계몽운동이었기 때문에 반제애국주의 색채를 띤 사회개혁운동으로 전환된 것이었고, 이들 중 다수가 국민혁명과 공산주의 혁명운동가로 변신해 갔다.³⁴⁾

오사운동과 공산주의 확산에 관해서는, 신문화운동의 과격한 반전통적 태도 내지 문화적 극단주의가 공산주의 흥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는 대만학계 보수적 입장과 오사애국운동을 통해 노동자가 정치무대에 대두하고 평민이 주인이 되는 ‘신민주주의’의 신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중국공산당 공식입장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영향 관계를 인정한 점은 마찬가지이다.³⁵⁾ 5·4시대의

33) 실제 北京大生の 취업 현황을 보면 교육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백영서, 1994;166에서 재인용.

34) 국민당 및 공산당과 학생층과의 상호관계 발전에 관해서는 백영서, 1994; 295-356 참조.

35) 華崗의 『五四運動史』(북경, 1954)는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에 입각한 신민주주의 시기의 시점으로서 5·4운동을 설정한 대표적 업적이다. 余英時도 양자가 필연적 관계는 아니지만 신문화운동이 공산주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점은 인정하였다. (여영시, 1979;

격양된 반전통 정서가 공산주의 이론 전파에 유리한 환경 제공하여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 오사애국운동을 거치며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청년들이 신속한 사회개조를 약속하는 듯한 공산주의이론에 매료되어 간 것은 사실이다.³⁶⁾

다른 한편, 전통 비판과 서구화의 사회 풍조도 만연하여, 학생들 사이에 '송양' 풍조가 광범하였고 특히 미국 선교사와 교회학교 미국유학생의 영향으로 미국에 대한 선망과 미국문화 수용, 미국유학의 소원 등 서구문화 모방과 학습열이 또 하나의 조류를 이루었다(백영서, 1994; 175-192).

신문화운동 시기의 신구 대립 내지 세대 갈등은 몇 개의 층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청년그룹 지식인과 보수적 지식인 사이에 갈등은 신문화운동 초기부터 시작되어 1920년대 신전통주의자 문화보수주의자들, 그리고 1930년대 전반서화와 본위문화 논쟁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전통에 대한 태도와 사상적 성향의 차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대 인물도 전면적 서구화를 추구하는 지식인을 '신지식인', 반대파를 '구지식인'이라 칭하고 구문화와 신문화의 대립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격렬한 반전통 사상이 고취된 청년학생층은 현실생활에서 기존가치체계와 충돌을 일으켰다. 특히 신교육을 받은 청년층은 기존 가족관계 속의 명령과 복종, 존비관념을 거부하고자 하여 충돌이 일어났고, 학교 등 직장내 상하관계에 있어서도 신구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식들은 결혼과 진로문제 등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쉽게 방기하지 못했다. 구질서를 준수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정도의 정신적 해방감을 느꼈고, 저항도 했지만, 실제 가족관계에서 기존가치를 팽개치고 해방을 달성하기는 어려웠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

410-411)

36) 진독수도 오사애국운동을 거치며 결정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로 변신하였으며, 중국공산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毛澤東과 張國燾가 모두 『신청년』잡지의 영향을 숭회하였고, 모택동은 후에 자신이 1920년 여름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고 에드가 스노우에게 회고하였다. (橫山宏章, 1987; 228)

셋째, 공산주의 확산에 따른 신지식인의 분열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지하는 진보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청년그룹이 마르크스주의자와 자유주의자로 분열되었을 뿐 아니고, 사회주의에 동조적인 지식인들도 마르크스주의자와 반대파인 사회민주주의자로 분열되어 ‘사회주의논전’이 야기되었다.³⁷⁾ 사회개혁운동에 종사하기 시작한 다수의 학생층이 러시아혁명 모델에 매료되고 중국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사상에 경도해 갔다. 5·4운동과 신문화운동을 겪으며 신사상을 흡수하고 구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난 청년세대는 자신들의 정신적 개조로부터 중국 사회의 개조로 관심의 초점을 바꾸었다. 민중의 결집된 힘에 의한 정치개혁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적극적 전망을 가지게 된 것은 ‘진정한 민주’를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도원칙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까? ‘5·4세대’는 극히 단시간 내에 형성되고 변질되어 갔지만 ‘구문화’를 옹호하는 기성세대와는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이다.

참고문헌

- 『新青年』(上海) 北京, 1915-24.
 胡適(1996), 『胡適文存』一~四集, (1924 초판), 黃山書社.
 陳獨秀(1933), 『獨適秀存』, 亞東圖書館, 上海 (1922).
 李大釗(1984), 『李大釗文集』上 下, 人民出版社.
 中國現代思想史資料編纂組(1982), 『中國現代思想史資料簡編』, 浙江人民出版社, 杭州.
 丁守和 주편(1999), 『中國近代啓蒙思潮』中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北京.
 白永瑞(1994), 『中國現代大學文化研究-1920년대 대학생의 정체성 위기와 사회 변혁』, 일조각.

37) 공산주의자와 분리되기 이전의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다분히 사회주의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 신자유주의 계열과 사회민주주의 계열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한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는 별개의 집단은 아니다. (허기림, 2001; 153.)

- 彭明(1984), 『五四運動史』, 人民出版社, 北京.
- 河干之(1989), 『近代中國啓蒙運動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北京.
- 顧昕(1992), 『中國啓蒙的歷史圖景』, Oxford University Press, 香港.
- 李澤厚(1992), 『中國現代思想史論』, 김형중 역 『중국현대사상사의 굴절』, 지식산업사.
- 野村浩一(1990), 『近代中國の思想世界--『新青年』の群像--』, 岩波書店, 東京.
- 橫山宏章(1987), 『中國近代政治思想史入門』, 研文出版, 東京.
- 佐藤愼一(1996), 『近代中國の知識人と文明』, 東京大學出版會.
- 姜明喜(1989), 『5·4운동』, 서울대동양사연구실편 『강좌 中國史』V, 지식산업사.
- 강명희(2004), 『民國初 중국 지식인의 민주주의와 평민主義 인식』, 『東洋史學研究』89집.
- 유형규(2006), 『“五四運動”과 “五四世代”: 재평가를 위한 시론』, 『中國現代文學』 37호.
- 윤혜영(2005), 『冰心』(1900-1999)과 20세기 중국상, 『한성사학』 20.
- 耿雲志(1989), 『中西結合, 創造新文化-五四新文化運動再認識』, 『五四運動與中國文化建設-五四運動七十周年學術討論會論文選』(이하 『논문선』으로 약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北京.
- 高力克(1996), 『“五四”后的社會文化思潮』, 許紀霖·陳達凱主編, 『中國現代化史』1卷, 上海三聯書店.
- 高力克(1997), 『“新青年”與兩種自由主義傳統』, 『二十一世紀』, 1997-8.
- 高力克(1999), 『五四啓蒙的困境:在歷史與價值之間』, 『浙江學刊』1999.2, 復印報刊資料 K4, 1999-7.
- 顧昕(1999-1), 『無政府主義與中國馬克思主義的起源』, 『開放時代』. 4~6 원게, 許紀霖 편(2000), 『二十世紀中國思想史論』下卷, 東方出版中心, 上海.
- 顧昕(1999-2), 『“五四”激進思潮中的民粹主義主題(1919-1922)』, 『公共論叢』6輯, 허기림 편(2000), 상권.
- 勞思光(1979), 『五四運動與中國文化』, 周陽山 편, 『五四與中國』, 時報文化出版公司, 臺北.
- 毛丹(1994), 『陳獨秀的民主神話及其思想資源』, 『二十一世紀』, 1994-8, 허기림 편(2000), 상권.
- 蕭功秦(2000), 『從政治浪漫主義到政治激進主義』, 허기림 편(2000) 하권.
- 梁敏(2000), 『最後的浪漫-五四時期作家散論』, 『廣州師院學報』21권 6기, 2000.6.

- 嚴家炎(1989), 「關於五四新文化運動的反思」, 『논문선』.
- 嚴搏非(2000), 「新文化運動時期的科學主義思潮」, 허기림 편(2000) 상권.
- 余英時(1979), 「五四文化的精神反省」, 周陽山 편, 『五四與中國』, 時報文化出版公司, 臺北.
- 閻潤魚(2003), 「比較視野下的新啓蒙運動」, 『中國人民大學學報』, 2003-6.
- 吳方(2000), 「吳宓與“學衡”文化保守主義」, 허기림 편(2000) 下卷.
- 王奇生(2007), 「新文化運動如何“運動”起來的-以『新青年』爲視點」, 『近代史研究(北京)』, 2007-1.
- 王小春(2000), 「重讀盧隱-論盧隱對“五四”婦女解放運動的反思」, 『南京師大學報』, 2000-1.
- 王元化(1989), 「爲五四精神一辯」, 『新啓蒙: 時代與選擇』.
- 殷海光(1979), 「五四的再認識」, 『五四與中國』.
- 印永清(1996), 「新文化運動中胡適與錢穆文學觀之比較」, 『華東師範大學學報』, 1996-1.
- 林毓生(1989), 「對五四時期思想啓蒙運動的再認識」, 『논문선』.
- 張灝(1999), 「重訪五四-論“五四”思想的兩歧性」, 『開放時代』, 1999.3 · 4. 허기림 편(2000) 上卷.
- 張清祥(2000), 「激情評判: “五四”激進派對儒學的態度」, 『南都學壇』, 20권 4기, 2000.7.
- 鄭大華(2005), 「中國文化保守主義研究的幾個問題」, 『天津社會科學』, 2005-2.
- 馮契(1989), 「五四精神與反權威主義」, 『書林』, 上海, 1989-1.
- 洪峻峰(1999), 「五四反傳統的實積與難題」, 『廈門大學學報』 1999-3.
- 許紀霖(2001), 「在自由與公正之間-現代中國的自由主義思潮(1915-1949)」, 『思想與文化』(上海) 1輯.
- 黃克劍(1989), 「五四文化價值取向論略」, 『논문선』.
- Chow, T.(1964), *The May Fourth Movement-Intellectual Revolution in Modern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조병한 역(1980), 『5·4운동』, 광민사.
- Dirlik, A.(1989), *The Origins of Chinese Communism*,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ieder, J.(1970), *Hu Shih and the Chinese Renaissance--Liberal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1917-193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in, Y.(1973), "Radical Iconoclasm in the May Fourth Period and the future of Chinese Liberalism" in *Reflections on the May Fourth Movement* ed. by B. I. Schwartz.

- Lin, Y.(林毓生)(1979), *The Crisis of Chinese Consciousness- Radical Anti-traditionalism in the May Fourth Era*,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Schneider, L.(1976), "National Essence and the New Intelligentsia", *The Limits of Change*, ed. by C. Furth,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wartz, B.(1983), "Themes in intellectual history: May Fourth and after"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warcz, V(1986), *The Chinese Enlightenment-Intellectuals and the Legacy of the May Fourth Movement of 191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원고 접수일: 2007년 9월 30일

게재 결정일: 2007년 11월 12일

ABSTRACT

Generation Gap of the May Fourth Period in China

Kang, Myung-Hee

Though the New Culture Movement (NCM) continued only about 4 years, it caused a drastic shift in the ideological trend of Chinese society. This iconoclastic anti-traditional movement pursued a whole-scale westernization, and drove Chinese society to a cultural and ideological clash. The leaders of NCM attacked the Confucian tradition and its ethical principles which oppressed women and young generation while supporting the despotic imperial system. They did not accept the common premise of the Chinese modernization movement which regarded the Chinese value system as body (or principle 體) and the Western political system and scientific techniques as practical methods(用). The NCM intellectuals achieved the most salient accomplishment in the New Literature Movement that resulted in the nationwide use of vernacular writing instead of literary Chinese contained confucian way, the Tao(道).

Conservative intellectuals criticized the anti-traditional movement of NCM intellectuals, emphasizing the everlasting value of Chinese tradition. Though the debate between 'new intellectuals' and 'old intellectuals' was not a matter of generation gap but of attitude toward tradition and history, it was called 'the debate of old and new,' because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s were regarded as representatives of the 'old Chinese culture' while the NCM intellectuals seemed as advocates of the 'new Western culture'.

Generation gap of the May Fourth period appeared between parent generation keeping traditional ethical standards and youth generation baptized by the messages of individualism and 'liberation from shackles of confucian tradition'. Chinese movement of women's liberation was disseminated as a part of anti-Confucian and anti-traditional movement. Most conflicting arena of generation gap was the marriage question. The educated youth insisted self-decision for their own marriage while most of parents preferred early marriage engagement of their children and regarded it unchangeable.

It is true that the charisma of Confucianism gave way and the thoughts of Chinese youth of the May Fourth period was far different from the older generations in a sense that they regarded Democracy and Science as their principles of thinking and behavior. However, it was so hard to change concrete and practical matter of real life. After the May Fourth Movement the nationalistic sentiment arose and the efforts of rediscovering treasures of Chinese tradition grew on one hand, and the pursuit for social reform and for radical methods of 'Strong and Equal China' found the direction/way in Marxism-Leninism, Communism of Russian Model on the other hand. Liberalism in China had never attracted national support since then.